

호놀룰루에 10대 매춘 기승 “학교 교정까지 진출 포섭대상자 물색”

와이키키를 비롯한 호놀룰루 일대에 10대 매춘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호놀룰루경찰국 가출청소년 지도반은 “최근 와이키키를 중심으로 경찰의 매춘단속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본토로 옮겨가는 매춘부들이 늘어나자 이들이 남긴 공백을 채우기 위해 10대 소녀들을 고용하는 악덕 포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가출청소년 지도반의 크리스틴 토마스 경관은 “그동안 적발된 10대 매춘부들 가운데에는 13세된 소녀까지 끼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주 매춘관련법안에 관한

주상원법사위원회의 공청회에 참석해 증언한 일선단속경관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포주나 경매인들이 주로 사림물에 진출한 채 어린 소녀들을 유혹했으나 최근들어서는 아예 학교 교정으로 진출, 여학생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대담성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토마스경관은 “이제까지 65건의 청소년 매춘을 적발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라며 “단속에 걸린 10대 매춘부들 중에는 평점 A학점을 받은 우등생도 끼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토마스경관은 “어린 딸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을 즐겨 하거나 귀가시간이 상습적으로 늦을 경우 부

모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와이가정법원의 존 브라이언트판사는 “하와이에는 10대 매춘부들을 위한 계도 프로그램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포주들로부터 이들을 격려해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혼방보다는 실형을 언도하는 경우가 잦다”며 미성년자 매춘부들을 위한 재활교육 및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10대 매춘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비키 카에타노여사는 연방정부로부터 특별프로그램 “필요한 재원을 얻어내기 위해 현재 대니얼 이노우에 연방상원의원과 협의를 계속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영역활동의 원동력』

한국고전 영역한 사무엘 김씨 내년엔 정신대 관한 다큐픽션 출판



『10여년간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표하는 고전을 영역판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제 나이 62살이 되어서야 어리시절 어머니가 저에게 걸었던 기대랄지 소망을 풀어드리게 된 셈입니다.

한국고대소설 『홍부전』과 『춘향전』, 『심청전』의 영문판

을 내놓은 사무엘 김(62)씨의 출판기념회가 6일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날의 주인공인 김씨는 일본에서 출생, 만주로 이주했다 다시 한국으로 건너간 뒤 1959년 뉴욕을 거쳐 하와이로 옮겨왔을 김씨는 엔지니어.

조국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며 어렵게 살아온 김씨에게 “나는 글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던 어리시절 어머니의 말씀은 주춧돌이 됐고 결국 미국영에서 외국어로 한민족의 정서를 전하는 작업을 떠맡게 됐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

기에도 벽한 이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모국어도 아닌 외국어로 글쓰기를 계속해온 김씨는 벌써 25년째 미국내 최대 제지업체인 웨이어하우스의 하와이지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다.

『홍부전, 심청전, 그리고 춘향전』은 우리민족의 대면적인 정서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민족의 아름다운 정신적인 문화를 미국 이민후세들에게 제대로 전달해주고 싶어 생활속의 영어로 우리고전 다시 쓰기를 강행 했습니다. 김씨는 한국고대소설 영역출

판에 이어 2000년 6월에는 년 픽션 『조선여자 정신대』를 미국내 최고 출판사인 랜덤하우스사를 통해 내놓는다.

정신대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소속회사의 제도적인 지원하에 하버드대학의 예천도서관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김씨는 내년 6월에 출간되는 그의 새로운 저서를 통해 정신대 탄생기로부터 1945년 소련침공 당시까지 정신대에 끌려나간 조선여인들의 한많은 삶을 재조명했다고 밝혔다. (심수경기자)



▲6일, 하오1시부터 5시까지 한인회를 찾아 무료 법률/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방휘성변호사(왼쪽)와 동포들.

한인회, 세무법률 무료상담 가져

한인회(회장: 주기성)는 6일 하오 1시~5시까지 한인회 사무실에서 최무정공인회계사와 방휘성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무법률무료상담을 가져다.

이날 세무보고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고경숙씨(43)는 “이제야 한인회가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제 역할을 하고있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병원측 실수로 인해 차이에 큰 손상을

입었다는 한 한인여성도 “오늘 상담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얻지는 못했지만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만족해 했다.

그러나 세무보고시준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자가 많지않자 무료세무보고 대상자의 연소득을 연 1만달러로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호놀룰루동물원 「생인용」 투어 실시

호놀룰루동물원이 발렌타인데이 하루전인 13일 동물들의 교미행태에 관해 알려주는 생인용투어를 실시한다. 「주르티카」로 명명된 발렌타인데이 특별투어에 참석하는 생인용들은 동물사육 전문가들과 직업단감꾼들로부터 동물들의 교미행태와 관련한 설명을 듣게 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8달러로 투어시간은 13일 하오 5시30분부터 11시까지이며 수익금 전액은 그동안 호놀룰루동물원을 후원해준 비영리단체에게 돌아간다.

하와이카이에 밤도둑 비상

사람있는 집만 골라 범행

주인이 잠든 틈을 이용해 가정집을 털어낸 하와이 카이카이에 출몰하고 있다.

가택집인 절도범들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빈집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최근 2개월동안 4건의 연쇄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사람이 있는 집만 골라 타는 특이함을 보였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대상으로 찍어둔 가정집에 침입, 주인이 깜빡이고 열어진 요문이나 유리미닫이 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뒤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경찰은 범인이 집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고가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은 점등을 들

어 돈을 마련하기 보다 스틸을 즐기려는 인근주민의 소행으로 보고 지난 2개월사이에 3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포포라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인 탐문수사를 펼치고 있다.

경찰은 5피트4인치-5피트6인치 키에 140-160파운드의 몸집을 지닌 남성을 수배하는 한편 하와이카이 주민들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꽃놀이 “2천년 1월1일에는 허용”

불꽃놀이 금지법안을 심의중인 주상원 관련 상임위가 2천년 신년맞이 불꽃놀이는 예전대로 허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사법위의 교통및 정부부서위의 동의를 얻은 불꽃놀이 금지법안에 따르면 불꽃놀이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는 2천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2000년 1월1일은 사실상 예외를 인정받은 것. 또한 문화적 또는 종교적인 목적의 불꽃놀이는 카운티의 동의를 받아 앞으로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상원위원들은 불꽃놀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공청회에서 불꽃놀이금지법안에 대한 찬성표

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천년 1월 1일을 예외로 하려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를 연다. 1192 와이마누스트리트에 위치한 순복음호놀룰루교회는 부흥성회가 열리는 동안 안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도 함께 갖는다. 또한 이교회는 종교 등부 지도교사및 교육전도사도 모집하고 있다.

순복음호놀룰루교 부흥회사경회 11-14일까지

순복음호놀룰루교회(목사: 이민석)는 11~14일 강담회복사를 초빙, 신년축복부흥성회

아메리칸항공 LA-HNL간 증편

아메리칸항공사가 8월부터 호놀룰루-로스엔젤러스구간을 매일 운항한다.

아메리칸항공사 대변인은 8월부터 로스엔젤러스-호놀룰루구간의 증편운항을 단행할 것이라고 이에 따라 이노석의 항공기 좌석이 1천여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8월1일부터 LA-호놀룰루 노선에 투입되는 188석의 보잉757기는 로스엔젤러스에서 매일 하오4시에 출발하게 된다.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모집

본국 외교통상부는 제3기 국제기구초급전문가(KJPO)과정 선발시험을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최종시험일(99.4.1)을 기준으로 만 32세 미만 한국국적을 소지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유해야 한다.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응시원서는 2월 8일~9월2일까지 호놀룰루총영사관에서 교부하며 접수는 같은 기간 동안 정부세종로청사 외교통상부 국제연합자료실로 하면 된다. 문의 595-6109(총영사관)

연말연시 선물은 역시 김차섭의 DK에서

Motorola V3620
DK에서 절찬리에 판매중
최소형
세계에서 가장작은 Motorola최신 히트작
직접오셔서 확인 하십시오.

Motorola STAR TAC 3000
\$79
있을 수 없는 가격

Motorola STAR TAC
\$179
진동기능

ERICSSON Start Tac AF-778
진동기능
\$59

ERICSSON 630
무료

SONY RX100
\$49

하와이 한인 최대 매장을 갖고 제일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께 봉사하겠습니다.

(주) 디·케이 통신
DK Communications, Inc.

TEL. 957-0088

주소: 818 Sheridan St. #202 (2층)
 Certain Restrictions apply · Call for more details

S. King St.
 Sheridan St. 맥도널드
 Rycroft St. HMSA
 Keaumoku St. 서라벌

“24-Hour Customer Care”

 AUTHORIZED WIRELESS AGENT